

2023
VOL.579

08

배움,
내일을
트위내는
오늘의 시간



큰★별쌤 최태성

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월간
내일

배움은 우리의 가능성을
무한 확장시킵니다



CONTENTS

2023 August VOL. 579

- 04 **내일을 열며**
- 오늘 당신은 무엇을 배웠나요?
- 06 **고용 아카이브**
- 12 **멘토크**
- 큰★별쌤 최태성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
- 16 **레벨업 스토리**
- 2023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대통령표창 수상자
(주)리시스템 인사총무팀 신민영 팀장
- 20 **슬기로운 회사**
- 산재예방 우수기업, 대원산업(주)
- 24 **기자단이 간다**
- 취업박람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 26 **MOEL News**
- 30 **잡 큐레이션**
- 숲을 살리는 명의, 나무의사
- 34 **취업 시크릿**
- 나를 간파, 취업 돌파!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야 우리두 할 수 있어!
- 36 **시네마 클래스**
- 위대한 낙관주의자가 전하는 성대한 위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
- 38 **워커북**
- 스마트한 업무 드라이빙을 위한 안내서
- 40 **널튼**
- 42 **고용한입**
- 43 **MOEL letter**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79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한국애드

오늘 당신은
무엇을 배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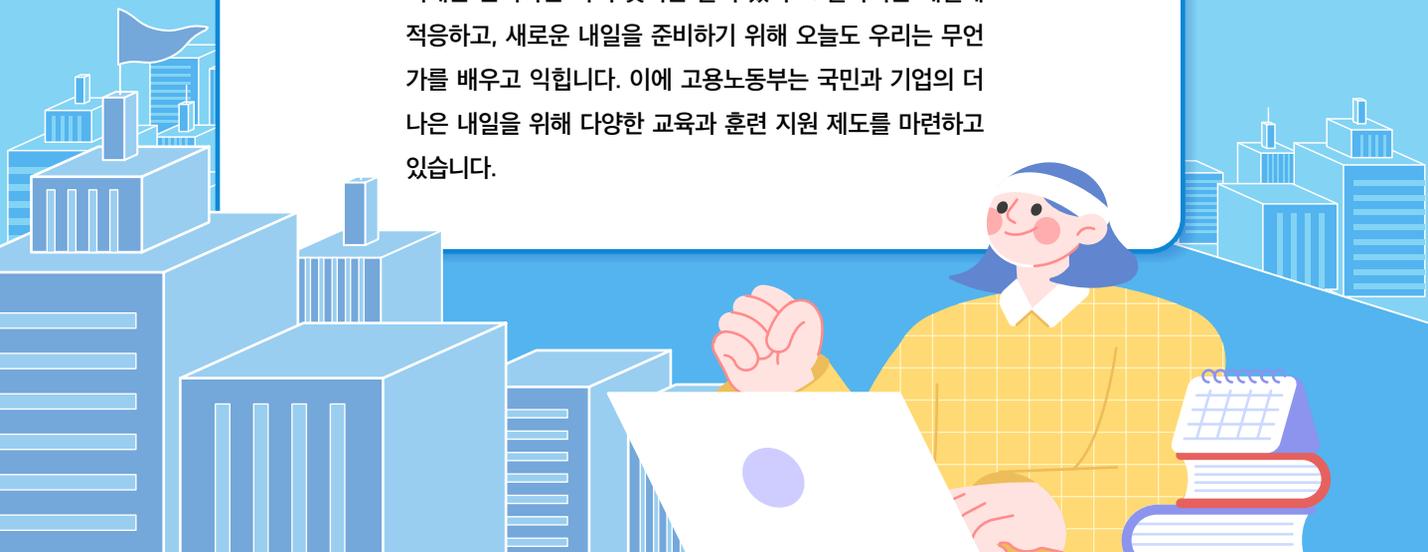




배움을 지원하고 미래를 응원합니다

국민과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교육·훈련 지원 제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란 말이 있지요. 달라지는 매일에 적응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고 익힙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민과 기업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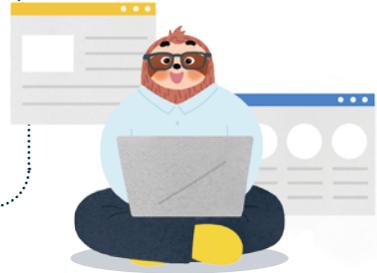


근로자를 위한 배움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 🔍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 스스로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카드발급 후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크레딧 방식인데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훈련비 지원 (훈련비의 45~85% 지급)

-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등 추가 지원 대상자에겐 100~200만원 추가 지원
- 5년 후 재발급 가능
- 수강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 훈련장려금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수강생에 한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자 중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겐 월 최대 11만6천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겐 월 최대 36만원을 지급 (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훈련과정 시간과 관계없이 월 최대 11만6천원 지급)
- 훈련장려금 신청은 훈련 수강 기관에 문의

➔ 지원 대상

공무원, 사립 교원 등 아래의 제외 대상이 아닌 국민이면 누구나 가까운 고용센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 누리집 (www.hrd.go.kr) 에서 카드발급 및 훈련 수강을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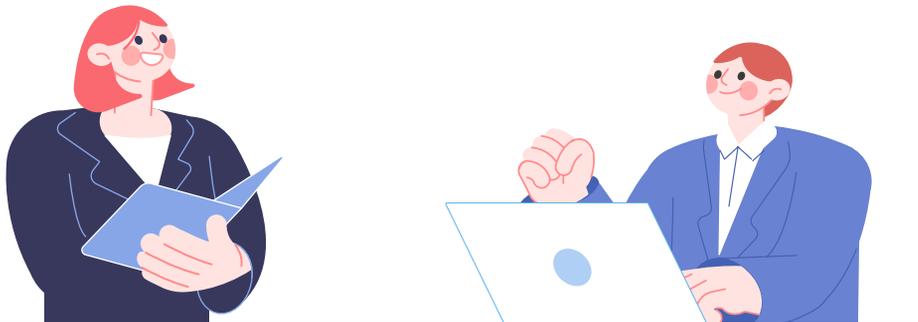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자,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등

→ 훈련 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되는 훈련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유형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일반)	취·창업, 이·전직, 역량 개발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훈련 제공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국가의 기간이 되는 중요 산업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3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과정으로 구성된 훈련과정 (훈련비 전액 지원)
과정평가형훈련	과정 이수 후 내·외부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훈련과정
일반고특화훈련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훈련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KT·삼성과 같은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직접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여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사업 (훈련비 전액 지원, 월 최대 31만6천원 훈련수당 추가 지원)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디지털·신기술 분야 및 직무융합과정을 초·중급 수준으로 구성된 기초역량개발 훈련과정 (지원한도 외 50만원 추가 크레딧 지원)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40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 제공
플랫폼 종사자훈련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 향상과 근로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훈련과정 (3회까지 전액 지원, 4회부터 자부담 10%적용)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훈련을 제공하는 지역맞춤형 훈련과정. 처음 1회에 한하여 훈련비가 전액 지원 (재직자의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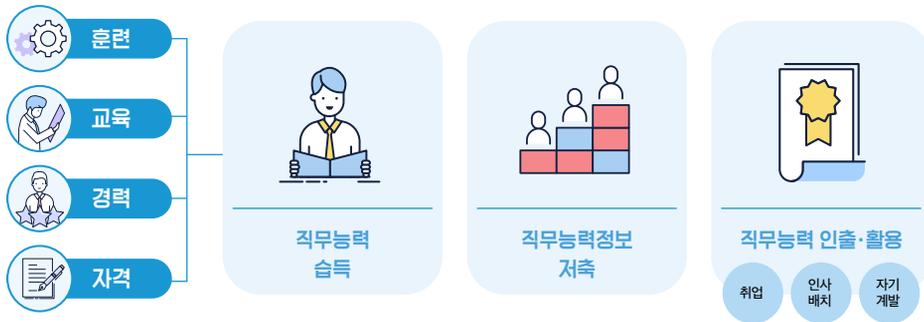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또는 직업훈련포털 HRD-NET 누리집 (www.hrd.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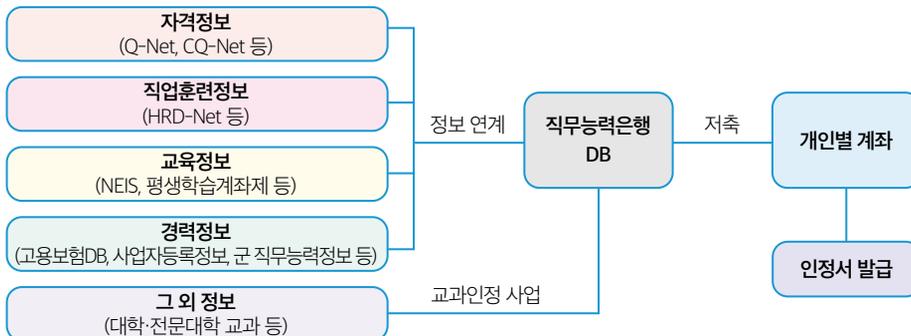
근로자를 위한 배움 직무능력은행제

i 직무능력은행제(NCS Bank)란?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및 경력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9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직무능력은행에 자신의 학습이력 및 자격, 경력 사항 등을 저축한 개인들은 정부로부터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 시 저축된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손쉽게 제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로써 기업은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이 직무능력 정보를 확인·증빙할 때 해당 기관에 개별 문의 후 일일이 발급받아야 해 불편했는데요. 이젠 인정서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증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워크넷의 직무능력 자동분석 AI 서비스 '잡케어'와도 연계하여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과 훈련추천에도 사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 문의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누리집 (www.ncs.go.kr)

기업을 위한 배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i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규모기업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최소 **500만원** 이상 지원



훈련비
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x 사업장 규모별 지원을



숙식비
식비 1일 3,300원 / 숙식비 1일 14,000원 (월 33만원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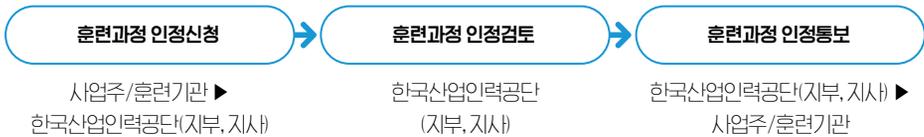
훈련수당
월 20만원 한도



임금의 일부
시간급 최저임금 x 훈련시간 x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연간 지원한도액은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이며, 최저 지원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입니다.

➔ 사업주지원훈련 인정신청 및 통보절차



➔ 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기업을 위한 배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CHAMP)이란?

우수한 훈련 인프라를 가진 대기업, 대학 등이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재직자, 채용예정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입니다.



2001년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시작으로 새로운 훈련 수요에 따라 신규 유형을 추가하면서 현재 7개 유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저탄소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신기술·신산업에 특화된 공동훈련센터(K-디지털 플랫폼,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등)를 신설하였습니다. 정부는 공동훈련센터의 시설·장비 구축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연간 최대 20억)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 (www.hrdkorea.or.kr)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누리집 (<http://www.c-hrd.net>)



“ 오래 고민한 선택이 안 좋은 결과로, 실수로 이어질 때도 많습니다.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기도 하죠.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는 것만이 좋은 결과로 이끌어 준다고 믿으며, 매일매일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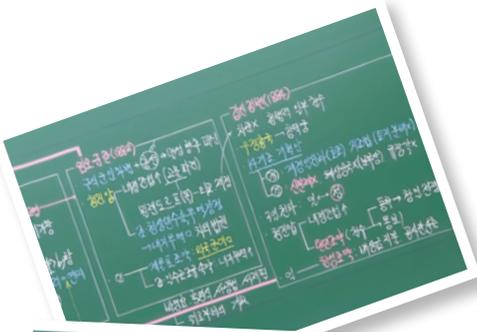
사랑하는 일을 만나면 배움도 즐거울 수밖에, 큰★별쌤 최태성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



최태성 멘토와의
더욱 자세하고 생생한
인터뷰는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모두의 한국사 선생님’으로 불릴 만큼 우리 곁에 친숙한 한국사 큰★별쌤 최태성을 만났습니다. 궁금한 것을 여과 없이 질문할 때마다 명쾌한 현답이 돌아왔는데요.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학습 강의부터 분야를 망라한 교양 강연에 이르기까지. 하루를 48시간처럼 살아내며 교실과 광장을 종횡무진 누비는 그에게 ‘배움’은 어떤 의미일까요? 스스로 ‘노력형’이라 밝힌 그는 역사 속 인물들로부터 인생의 힌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Q. 아름답고 웅장한 판서를 곁들인 교수법으로 큰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사 수업 중에, 교재에 있는 것을 기호까지 그대로 옮겨 쓴 선생님의 판서를 제가 똑같이 따라 쓰고 있는 모습을 문득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교사가 된다면 이야기로서의 역사를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이후에 판서의 스타일을 계속 다듬으며 시간의 흐름을 구조화하고 한눈에 담을 수 있게 했더니 수험생들의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트 판서’라고 이름 붙여주신 것도 감사해요. 스스로도 만족스럽고, 솔한 수정의 노력이 결실로 나타난 것 같아 뿌듯합니다.



Q. 바쁜 와중에도 장거리 이동을 불사하며 현장 강연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거리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매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강연 외에도 사인을 해드리거나 함께 사진을 찍는 등 부가적인 요청이 늘었지만 이 또한 제 일의 일부이

고 보람도 커요. '스타 강사'를 만난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야겠다는 부담감 같은 건 없습니다. 평소 '일을 사랑한다'라기 보다는 '사랑하는 일을 한다'라고 주변에 말하곤 하는데요.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기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제 삶의 큰 에너지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Q. 역사를 재미있게 알려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한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스킬'이 있지는 않아요. 어디선가 웃긴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가 생기면 제가 그 재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요. 이런 걸 보면 제게 해주시는 칭찬들은 다 우리 조상님들의 이야기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천재형'보다는 '노력형'에 가까운 거죠. 의미 있는 이야기에 감동을 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무료 강의의 시대'를 열며 공유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그 계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 같은 결단 역시 '역사'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사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길도 많이 있겠지만, 역사 속에서 눈앞의 이익 대신 대의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마음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제가 매일 만나는 역사 속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신념으로 길을 가고, 결론적으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며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Q. 이번 달 <월간 내일>의 주제가 '배움'인데요. 선생님께 특별한 배움을 준 인물을 한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평소 인생에 질문 없이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는데요. 좋은 질문을 안고, 끊임없이 답을 찾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게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안겨주신 분이 바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신데요. 일제강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가 양성에 모든 것을 바친 모습을 보며,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고민하게 된 거죠.





Q. 공부와 일, 끝없는 배움 앞에서 지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하소연이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매일매일 재미있고 색다른 변화로 가득한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겠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되는 삶에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였어요. 왜 이 일을 하는지 고민하고 의미를 찾는 여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Q. 끝으로 배움에 도전하는 월간내일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박노해 시인이 '위대한 삶을 표현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삶이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며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 곧 위대한 삶이다." 이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의 노력을 통해 누군가 조금씩 변화되리라 믿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좀 더 즐겨보려는 마음가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큰★별쌤 최태성은 역사 속 인물들의 자취를 따라가며 역사 이야기에 섬세한 감각을 더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난 후의 울림과 감동은 이 같은 진심 덕분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의 모습처럼, 우리도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
쉽없이 수많은 계절을 달려왔습니다
이젠 나의 봄을 꿈꾸려 합니다

2023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대통령표창 수상자
(주)리시스템 인사총무팀 신민영 팀장



2023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대표령표창을 수상한 신민영 팀장은 진단용 의료 장비를 만드는 (주)리시스템의 인사총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입사 11년 차 베테랑인 그는 두 명의 아이를 키우는 일하는 여성이자, 끊임없이 배움을 계획하는 열정의 리더였습니다.

내향인, 소통의 달인이 되다

신민영 팀장은 자신을 내향형 인간이라 말합니다. 극도로 소심하며 화가 나거나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밤새 잠도 못 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있는 그의 모습은 완전한 외향형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 만나든 먼저 다가가 말을 거는 친화력에, 어느 모임에서든 끊임없이 소환되는 사내 핵심 '인싸'인데요. 그는 이를 두고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일이 인사총무팀에서 마무리되기 마련이고, 노사 혹은 부서 사이에서 소통의 달인이 되어 화합과 상생을 끌어내야 하는 것 또한 인사팀의 몫이기 때문이죠. 내향인 신민영이 소통의 달인이 된 것, 이것은 어쩌면 그에게 하나의 도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움을 향한 도전, 또 도전!

그의 삶은 새로운 배움에 대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상업계고 출신으로 재무·회계 분야에서 일했던 그는 (주)리시스템에 입사 후 우연히 접한 직원교육업무를 통해 인사업무에 적성이 있음을 깨닫고 뒤늦은 학업을 시작합니다. 이미 아이들의 엄마였던 36세 직장인 신민영은 일과 가정, 거기에 학업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난도 사냥터에 뛰어들었고 마침내 대학에서 인사조직·전략벤처학과 학사학위를 따냅니다.



그러나 근로 현장에서 자신의 배움과 노력은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신 팀장은 다시 공부를 계획합니다. 이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신이 더 많이 더 확실히 알면 된다 싶었습니다. 결국 제조업 분야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산업경영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했고, 현재 그는 박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편견을 이겨낸 노력의 진정성

그간 인사총무팀장으로서 신민영 팀장이 일군 성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2014년부터 일·학습병행 재직자 훈련, 도제학교, IPP(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과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내 교육 제

도를 수립·운영, 내부 인력 양성을 통해 인력 수급이 어려운 기업의 현실을 타계해 나갔습니다. 체육대회, 걷기대회, 워크숍 등 직원들 간 다양한 소통의 장을 기획하여 조직 융화에 힘썼고, 조직활성화비를 지원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부서별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조직의 중심 동력인 2030세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력보단 경험을 반영한 '개인의 직무역량 평가'를 인사평가에 도입하고, 신규 직원과 기존 직원 간 멘토링 제도를 통해 조직 적응과 업무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여 일·생활 양립의 워라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갔습니다.

제도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직원들과의 면담이 많은 신 팀장은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 심리학 공부도 병행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스스로를 '배워가는 단계'에 있다고 말하는 신민영 팀장. 출산휴가, 육아휴직 개념이 없던 시절에 아이를 낳았고 두 자녀를 키우면서도 일을 포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를 워커홀릭이라 칭하는 신민



영 팀장은 본인의 심에 있어서는 다소 인색한 편입니다. 휴식이 익숙하지 않아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쉬었을 때 멍해지는 게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목표를 정하고 배우고 채우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녀와 엄마 사이

신 팀장은 말합니다. 좋은 일터란 근로자가 더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지만 신 팀장은 현장 직원들로부터 '마녀'라 불리었습니다. 노사의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에겐 마녀가 될 때도 있었을 테니까요. 내향인 신민영이 외향인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마녀로 보인 신민영 역시 중간자로서 자기 선을 분명히 하는 모습에서 비롯된 일종의 직업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신 팀장은 자신을 큰엄마, 대모라고도 표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이 일단 신 팀장을 찾으니까요. 그가 직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니 엄마냐?' 우리가





엄마를 찾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엄마는 늘 답을 알고 있거든요.

회춘, 봄이 돌아오다

자연인 신민영의 꿈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그는 ‘회춘’이라고 답했습니다. 일하며 아이를 키우며 많은 부분 자신을 내려놓았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동안 거의 없는 것과 같았던 자연인 신민영의 삶을 다시 찾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서도 퇴직 후 계획에 대해 기업들 상대로 자신의 경험을 알리는 거라 말하는 인사총무팀 신민영 팀장님. 그러나 목표한 것을 차근차근 채워 온 그의 모습에서 다시 봄을 맞을 그녀의 미래가 그저 먼 이야기로만 들리진 않습니다. 인터뷰 마지막, 신민영 팀장은 <월간내일> 독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미친 짓이

다’라고요. 반복적인 회사 생활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스스로 움직이세요. 변화를 시도하고 배우고 도전하세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전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성과입니다

산재예방 우수기업, 대원산업(주)

안전한 시트 생산에서 안전한 근로 현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에서 운전자와 탑승자가 오롯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곳, 바로 시트인데요. 승차의 편안함은 물론 차내에서의 안전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일까요. 5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자동차용 시트 생산 외길을 걸어온 대원산업(주)이 가지는 '안전'에 대한 자세는 남들보다 조금 특별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한 물건을 만들던 회사는 이제 직원들의 안전한 근로 여건을 만드는 일에도 진심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80~90년대만 하더라도 안전보다는 제조 자체가 우선시되는 시대였고, 2000년대에는 품질과 원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였으니까요. 오늘날 지속가능한경영(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이란 가치가 시대의 화두가 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의 가치를 드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에 기민하게 대응한 것이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대원산업(주)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노사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근로생활

대원산업(주)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다양한 위험성 평가 기법을 도입,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이후 매해 7월 첫째 주 지정하였던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산업안전보건 의 달'로 격상했습니다. 그만큼 근로 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과 가치가 높아진 것일 텐데요. 오늘은 2023 산업재해 예방 유공 정부포상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대원산업(주)의 김재덕 전무이사를 찾아 산재예방과 안전한 근로현장을 위해 애쓰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운영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전 문제의 당사자인 근로자를 참여시키기 어렵거나 평가 기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등 아쉬움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결국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기법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내 주요 위험 요인을 반영하고 기법을 단순화하는 등 평가 중심에서 개선 중심의 기법을 만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노사가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노사가 함께 안전을 위해 노력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번 산재예방 유공포상 수훈의 가장 큰 공을 세운 활동이 아닌가도 싶는데요. 바로 지난 2021년 발족한 '재해예방위원회'입니다. 자체 개발한 참여형 위험성 평가 수행이 자리를 잡아 상시적인 안전보건체계 작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노사가 함께 참여해 산재예방과 안전에 대한 민원과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구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재해예방위원회가 정한 '10대 안전수칙'은 포스터로 제작해 근로자가 쉽게 보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개선은 80건, 작업자 애로사항 개선은 225건에 이르는데요.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생산공정에서 업무 부하 및 위험성이 감소한 것은 물론 불량률 또한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3,150만원, 근로 손실비는 2,380만원이 감소했으며, 무엇보다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개선하다 보니 직장생활 만족도 및 안전보건 활동 참여도는 높아졌다고 합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시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매년 단계적으로 안전보건 예산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년도 투자실적 대비 26.9% 상승한 2억6천8백만원을 안전보건 예산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안전에 관한 비용이 기업에게는 부담일 수 있지만, 안전사고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이 기업에겐 더 큰 부담이며 손실이라고 김재덕 전무이사는 말합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야말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이며, 일터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가정으로 건강하게 복귀하



안전한 현장이 만들어낸 긍정의 신호

그간 노사가 함께 발굴해 개선한 위험 요인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총 335건이며, 고위험 공



계끔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일은 기업의 책임이며 의무라며 말이지요.

안전의 완성, 결국 사람이 만든다

제 아무리 좋은 안전 장치가 있더라도 안전에 둔감한 인간 앞에선 쓸모를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원산업(주)은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데 주력한다고 말합니다. 제제와 통제에 불가피한 안전 보건 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 재해예방위원회에서 매월 작업장 순환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별 것 아니지만 과자라도 하나씩 나누어 먹으며 이거 이거 좀 지켜주세요 하는 것이 의외로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슬로건 공모전 등 포상 제도를 운영하여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문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당선된 슬로건은 현수막으로 제작해 전 공장에 게시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당선된 슬로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근할 땐 기분 좋게!
작업할 땐 안전하게!
귀가할 땐 행복하게!

Interview



2023 산업재해예방 유공 정부포상 동탑산업훈장 수훈
대원산업(주) | 김재덕 전무이사

Q. 동탑산업훈장 수훈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저는 대표해서 받았을 뿐이고 우리 임직원 모두가 함께 애쓴 덕분입니다. 저와 직원들 모두 어떤 자긍심 같은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광을 주신 것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Q. 입사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걸어오신 과정이 궁금합니다.

A. 입사해서 지금껏 설비, 개발, 생산, 품질, 자재 등 현장과 같이하는 부문에서만 근무했습니다. 현장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일해왔지요. 어디서 사고가 나진 않을까, 어디 불편한 점은 없나 하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탁상공론하지 마라,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개선하러입니다. 우리 협력 회사들에게도 사고 없는 일터를 만들자고 이런저런 기술 지도도 하는 중입니다.

Q. 앞으로의 목표나 꿈이 있으시다면요?

A. 회사 생활을 현장에서 오래 해오다 보니 이제 남은 생활이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회사를 떠나도 대원산업(주)은 정말 사고 없는 회사다, 일하기 좋은 회사, 출근하고 싶은 회사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Q. 세상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전을 위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전에 있어서만큼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걸리는 물건이 없게 항상 주변 정리도 잘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꼼꼼히 재차 살피고, 업무 시작 전에 간단히 몸 풀기 운동이라도 하면 그날 하루 일도 잘 풀리고 사고도 안 나거든요. 다들 귀찮아서 안하죠. 나 자신을 위해 습관처럼 이런 준비들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취업박람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취업 성공을 위한 <5-3-2 법칙>



안녕하세요? 제15기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윤용 기자입니다. 저는 지난 대전에서 열린 굿잡(JOB) 일자리 박람회를 다녀왔는데요. 이러한 박람회를 갈 때마다 취업 박람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았는데요. 생생한 일자리 발굴 현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5-3-2 법칙>으로 정리해 봤어요. 함께 알아볼까요?

※ 윤용 정책기자의 생생한 방문 기사는 고용노동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16067494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박람회를 방문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5가지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법이죠. 무작정 방문하기 보다는 시간을 들여 꼼꼼히 준비한다면 박람회 뿐 아니라 다른 취업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 계획서 만들기

박람회 방문에 앞서 참여 기업 현황을 미리 조사하고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관심 기업을 미리 파악하고 채용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방문 일자 정하기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면 참여 일자에 맞춰 방문 일자를 결정하세요. 박람회는 대체로 하루 이상 개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 기업의 참여 일자를 확인해야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준비하기

일자리 또는 취업박람회에 참가할 때는 본인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가세요. 기업 담당자에게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현장에서 바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면접 대비하기

자기소개와 핵심 역량에 대해 미리 준비하세요. 박람회에서는 일부 기업 담당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장점을 잘 전달하고 왜 해당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질문 목록 정리하기

기업 대표나 담당자와 대화할 때 필요한 질문을 생각해주세요. 기업 관계자를 통해 회사의 업무 환경, 조직 문화, 향후 투자 계획 등의 궁금한 점을 더욱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박람회에서도 명심해야 할 ③가지

준비된 '나'를 보여주고 내게 필요한 정보를 빠른 시간안에 얻을 수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박람회 현장에서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① 복장과 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최대한 단정한 복장을 준비하세요. 액세서리나 메이크업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친절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상대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② 네트워킹과 소통

가능하다면 박람회 현장에서 참가 기업 관계자나 다른 구직자들과 소통해 보세요. 서로의 관심 분야나 직무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맥을 넓히고 기업과의 소통 채널로 활용할 수 있어요.

③ 정보 수집하기

박람회에서 받은 기업의 채용 안내서, 회사 소개 자료, 모집 공고 등을 잘 챙겨주세요. 당장은 필요 없어 보이지만 지원서를 작성할 때 참고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취업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번 박람회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구직을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람회 방문 후 잊지 말고 챙겨야 할 ②가지

박람회를 다녀온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낸다면 당신은 진정 취업 성공을 위해 한걸음 다가선 것이죠.

① 피드백 이메일

박람회 이후에도 상담이나 면접을 진행했던 기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이런 적극적인 소통방식이 채용 과정에 긍정적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② 박람회 정보 사이트 활용하기

박람회 전문 사이트를 활용하면 훨씬 유용하고 계획성 있게 일정을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굿잡 일자리 박람회'에 대한 정보를 얻은 대표적인 박람회 사이트들을 소개합니다.

- 서울고용복지+센터 - 행사일정 - 채용행사 - 리스트로 보기 (work.go.kr)
- 2023년 대한민국 취업박람회 대표 플랫폼 - [잡815 \(job815.com\)](http://잡815.com)
- 채용설명회 일정 - [사람인 \(saramin.co.kr\)](http://사람인.com)

1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 운영합니다

#폭우·폭염특별대응기간 #안전보건조치현장점검



오는 8월 31일까지를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으로 정한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과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8일~19

일 건설현장·제조업체 3곳을 점검한 데 이어, G20 고용노동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7월 20일(목) 아침에도 경기도 안양시 소재 복합건물 건설현장을 찾았습니다. 연이은 집중호우로 중대 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관리자의 사전 점검 및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모든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등 장마철 재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습니다.

2 외국인근로자도 안전하게!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외국인근로자안전보건확보 #외국인체류관리전담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11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소재 E-9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 두 곳을 방문하여 작업환경과 주거 여건 등을 점검하고, 어업 현장에서의 안전과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당부하는 등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전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9월 하반기 고용 허가 사업장 지도·점검 시에는 지방관서 외국인팀-산업안전감독관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인데요.

전국 지방관서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감독, 산업안전을 연계·지원하는 ‘외국인력 체류관리 전담반(TF)’ 운영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3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위험성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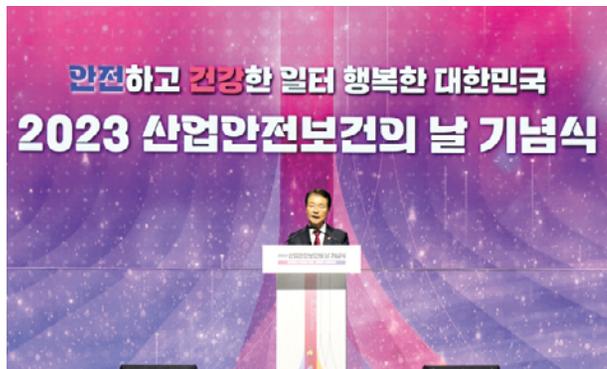
지난 7월 13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체를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점검 후 사업주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험성평가 도입사례 등 중소기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



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인근 사업장 사업주 10여 명과 함께 위험성평가 도입과 운영에 관련한 애로사항,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개별 사업장 사정에 맞는 재해예방 체계를 실효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안전을 보는 눈이라 비유한 이정식 장관은 위험성평가가 근로 현장 전반에 뿌리내려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안전한 일터를 위한 다짐,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산업안전보건의날 #산재예방유공포상



안전을 강조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 둘째 주부터는 전국의 산업 현장에서 지역 단위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날 기념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예방 유공자 18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헌

신과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이후 매해 7월 첫째 주 지정하였던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격상한 고용노동부는 7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제안전보건 전시회, 안전보건세미나 등 일터에서의 생명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해진다는 것을 강조하며,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확립과 안전문화 확산을 당부했습니다.

5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특전한 안전망,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친화기업문화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2일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이정식 장관이 참석해, 사업에 참여한 청년 및 운영기관과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사회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찾아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향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1만 5천여 명의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그중 5천 3백여 명이 직업훈련을 이수하거나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단년도 사업이었던 본 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하고,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다양화하는 등 현

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새로운 사업 추진안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 단위에서 어려운 청년을 조기 발굴·지원하고, 기업들이 보다 청년친화적인 조직문화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입사 초기 청년들이 회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6 규제혁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2023년상반기규제혁신사례 #산업안전 #노동행정

고용노동부는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산업안전'과 '노동행정' 부문으로 나누어 소개했는데요. '산업안전' 부문에서는 모바일을 통한 안전보건교육, 중복되

던 안전보건 관계자에 대한 교육의 일원화, 사업주·안전보건관련 이사·본사 전담 조직 근로자 등의 조직 구성원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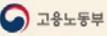
활용한 자체 안전보건교육 강사 가능, 최신 기술에 맞춘 폭약 발파방법의 기준 혁신, 전기 정격 용량이 300kw이상 증가할 때마다 제출하던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모델에 같은 물질을 취급 시엔 미제출을 허용하는 등 5가지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노동행정' 부문으로는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용자 요건 완화, 노무사 컨설팅 지원을 영세 소규모 상시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민원 신청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하는 노동포털(labor.moel.go.kr) 신설 등 3가지 규제혁신 사례를 선보였습니다.



7 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4개 업종 지원방안 발표했습니다

#제2차빈일자리해소방안 #구인난극복지원

지난 7월 12일 고용노동부는 뿌리 산업 등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차 대책에서 선정된 6개의 업종(산업부제조업, 국토부물류운송, 복지부보건복지, 농식품부음식점업, 농식품부농업, 국토부해외건설)의 과제를 보완하고,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신규 선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다음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천의 뿌리산업 기업 (주)에스티를 방문해 작업 현장을 살펴보고, 근로자와 사업주 의견을 청취하며 지원대책을 설명했습니다 (주)에스티는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가 협업하는 '인천뿌리산업 빈일자리 해소 사업'에 선정되어 내일채움공제 및 자문, 여성인력을 위한 유연근로시간 활성화 등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인천뿌리산업 빈일자리 해소 사업'이 실질적 도움이 되고, 나아가 성공모델로 다른 지역까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7.12(수)

건설업 *국토부

- ✓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적용·확산
- ✓ 건설기능인등급제 기반 교육확대 인력매칭지원

해운업 *해수부

- ✓ 승선기간·유급휴가일 개선, 외항원양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 우수외국인 장학생 유치, 외국인력 인권보장 강화

4개 업종 맞춤형 지원

수산업 *해수부

- ✓ '아선원보험' 의무화,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
- ✓ 외국인력 쿼터 확대 검토, 복지회관 조성

자원순환업 *환경부

- ✓ 폐기를 공공선별장 현대화·자동화 지원
- ✓ 산업계 수요 맞춤형 재직자 교육강화, 고급인력 양성

〈기존 6개 업종 추가 과제〉

<p>조선업 *산업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구제화 등 격차해소 지원 ✓ 외국인력 신속도입 지원 	<p>뿌리산업 *산업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형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 '뿌리명장센터'운영, '도약센터'신설 	<p>물류·운송업 *국토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 연장·지원 ✓ '버스터미널 지속가능 기반조성 방안' 마련
<p>보건·복지업 *복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추진 ✓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 방안' 마련 	<p>음식점업 *농식품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연계매칭 지원 ✓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p>농업 *농식품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형 영농작업반 확대 ✓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특별법' 시행



➔ **뿌리산업이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의미로,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해 부품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나무환자는 나무의사에게! 숲을 살리는 명의, 나무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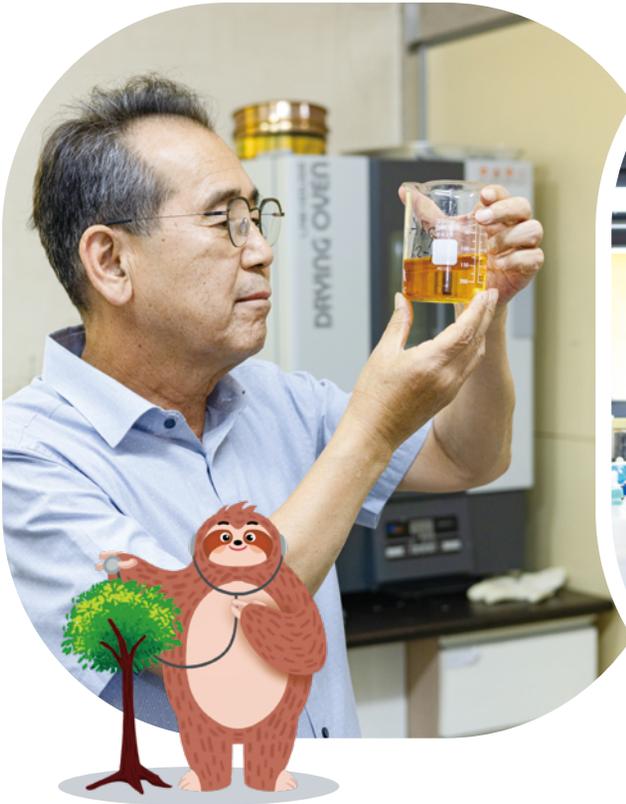
Tree Surgeon

‘숲’은 수풀의 준말로 나무들이 무성하게 우거진 모양을 뜻합니다. 숲은 다양한 생명들이 태어나고 생을 이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인간 역시 숲에게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숲은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배출하고, 미세먼지를 걸러내어 공기를 정화합니다.

숲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나무의사’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3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나무를 돌봐온 이를 만나보았습니다.





병들고 아픈 나무는 누가 치료할까요? 지난 6월 28일, 2018년 도입한 나무의사제도가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와 자연 환경 오염으로 인해 산림 피해의 원인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나무가 병드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더욱 세밀한 연구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무는 흔히 볼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위로 쪽 뺨은 기둥과 수많은 나뭇잎들. 아파트 단지에서, 학교에서, 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아픈 나무의 속사정까지 알아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비전문가들의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약제와 독성이 강한 농약, 나무의 종류와 생장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살충제 사용 등의 피해 사례가 증

가했습니다. 건강한 줄로만 알았던 나무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산림청이 나무의사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전문화된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무의사제도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문 인력을 활용한 수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기본이고 양질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539명입니다. 나무의사의 자격시험 응모 자격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별도의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하므로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나무의사제도를 견고히 수립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는 나무의 건강이 곧 인간의 안전과 연결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면 천수를 누리지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나무를 잘 키우고 보호하려면 수종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나무의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들고 수세가 약해진 나무를 치료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나무의사 이승제입니다. 1985년 나무의사로서 첫발을 뚫고, 1991년부터 서울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나무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의 고향은 충청북도 진천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꺾꽂이를 취미로 삼을 만큼 나무와 자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친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 다닐 때 국내 최초로 나무병원을 세운 1호 나무의사 강전유 원장의 강의를 듣고 나무의사의 길을 걸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무의사는
정년이 없지만
평생 공부를 해야
합니다.

수많은 나무를
관찰하고 치료하는
경험, 즉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야
빛을 발하는
직업입니다.

Q. 나무의사의 매력적인 점은 무엇일까요.

나무의사는 몸으로 뛰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지만, 나무의사는 반대로 환자를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나무는 아프더라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이런 점이 '치료'라는 개념에서 보았을 때 특수한 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의사는 직접 나무를 보고, 만지고, 높은 위치까지 타고 올라가고, 뿌리와 가지를 채취하고, 주변 토양 환경을 분석합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Q. 나무의 생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토양은 식물의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외과 수술에 집중했는데, 그때 토양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조건 깊게 묻어야 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는 나무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합니다. 뿌리는 산소량이 15%~35%일 때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토양의 20cm 이내에 90%이상의 영양분과 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깊게 뿌리를 묻고, 흙을 단단하게 다지면 탄소는 늘어나고 산소는 줄어듭니다. 즉 뿌리가 제대로 호흡할 수 없게 됩니다.

Q. 나무 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외과 치료와 내과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과 치료는 나무의 썩은 환부를 긁어내고 살균·살충 처리를 합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하기 위해 지주대와 당김줄을 이용하지요. 간혹 다른 물질로 속을 메꾸거나 쇠를 박아 넣기도 합니다. 내과 치료는 나무의 샘플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균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약제를 처방합니다. 전지가위, 루페, 토양경도계, 토양산도계 등 어



러 가지 진료 도구를 적재적소에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 없이 약제를 처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므로 피토플라스마처럼 매우 작은 균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기계를 보유한 대학교에 의뢰를 맡기기도 합니다. 나무의 구조는 죽은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더 이상 썩지 않게, 더 이상 부러지지 않게 치료하면 아무렇지 않게 새살이 돌아옵니다.

Q. 나무의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무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면 나무의 종류에 따른 생리를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무가 병드는 이유는 기후 변화, 토양 환경, 약제, 병충해에 의한 요인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고 작은 잎부터 땅속의 뿌리까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나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애정을 품는 것은 물론 보다 섬세한 태도를 겸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를 암기하는 노력 그 이상의 많은 경험을 터득해야 진정한 나무의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 의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오랜 꿈입니다.



★ 직무 사전

★ 직무명 나무의사

★ **직무정의** 수목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 예방 및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 |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관련 전공** 원예학과, 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등 산림과 관련한 모든 학과

★ **직무 목표** 전문적인 뿌리이식, 나무의 모양과 상태 파악, 병해충, 기상 및 주변 환경 등으로 인한 나무의 쇠약과 고사원인 진단 | 나무의 회복,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의 처방과 조치

★ 자격 시험

-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응시자격

- 1) 수목진료관련학과의 석·박사 혹은 1년 이상 실무중사한 학사학위 취득자
- 2) 산림·농업 분야 특성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 실무 종사자
- 3)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지정 자격 소지자
- 4) 산림기능사·조경기능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종사자
- 5) 수목치료기술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 종사자
- 6) 수목진료관련 직문 5년 이상 실무 종사자

• 시험 방식 및 일정

- 1)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논술·단답형 시험으로 구성, 1, 2차 모두 각 과목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
- 2) 접수 방법 : 수목진료전문가 누리집(<https://namudr.kofpi.or.kr>)에서 온라인 접수
- 3) 현재 제9회 시험 2차 일정이 남아있으며, 2024년 제10회 시험(1, 2차) 시행 예정 / 제9회 시험 2차 원서접수 : 2023년 9월 4일(월) 09:00 ~ 9월 8일(금) 18:00 / 시험일자 : 2023년 10월 14일 (토) / 합격자 발표 2023년 11월 17일 (금)

※ 자세한 사항은 수목진료전문가 누리집(<https://namudr.kofpi.or.kr>)과 한국임업진흥원(대표전화 1600-3248/4번 나무의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간파, 취업 돌파!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야우리두 할 수 있어!

취업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어, 자격증 등 학문적인 스펙 외에 직무경험에 대한 중요도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포트폴리오 제출이 거의 필수가 된 IT·디자인 직군은 물론, 일반 기업에서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란 말이 아직 조금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취업 포트폴리오에 대해 궁금하거나 혹은 익숙해지고 싶은 이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① 취업 포트폴리오란?

자신의 직무역량을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자료집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담지 못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별도의 자료 형태로 모은 파일입니다.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나 인포그래픽, 영상 등의 시각적 요소들이 주로 활용되는데요.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플랫폼도 다양합니다. 작성자의 인생과 성과물이 담긴 포트폴리오는 하나의 콘텐츠로서 인식되기도 하는데요. 지원자가 가진 재능과 경험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개성과 센스, 틀을 다루는 기술, 특히 PR 능력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용도에 맞는 플랫폼의 활용

취업 포트폴리오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PPT를 활용한 포트폴리오입니다. 파워포인트 등의 PPT 프로그램이나 미리캔버스, 망고보드 같은 PPT 플랫폼을 통해 제작할 수 있습니다. PDF 형식을 원한다면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등 전문 디자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고요. 요즘은 웹사이트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제작도 인기입니다. 노션, 어도비 포트폴리오, 비한스, 그라폴리



오, 워스, 비메오 등의 웹사이트에서 제작할 수 있으며, 용량에 상관없이 다른 방식에서 구현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웹사이트 포트폴리오는 작품 전시의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③ 직무별 전략 추천

01_기획 창작 직군 (기획자, 마케팅, 디자이너, 작가, 예술가 등)

창작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단순한 결과물의 나열이 아닌 결과로 가는 과정을 함께 담아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발상의 시작과 전개, 그 과정에서의 대중 설득과 시대 교감 등은 기획 창작 직군의 핵심 역량인데요. 여기에 보유 스킬, 기교 등이 더해지면 기획 창작자로서 자신의 현재 역량과 미래 가능성을 십분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02_기술 개발 직군 (기술직, 연구개발직, 생산직 등)

보유 스킬의 수준과 이와 관련한 구체적 성과 사례들을 알리는 데 주목하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능한 인재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말이지요. 또한 당신의 끈기와 성실함을 어필하세요. 부단한 시도와 반복이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직종이기 때문이지요. 스킬이나 성과가 미비한 신입 지원자라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실무 경험, 직종에 대한 진심이 담긴 작지만 구체적 결과물들로 패기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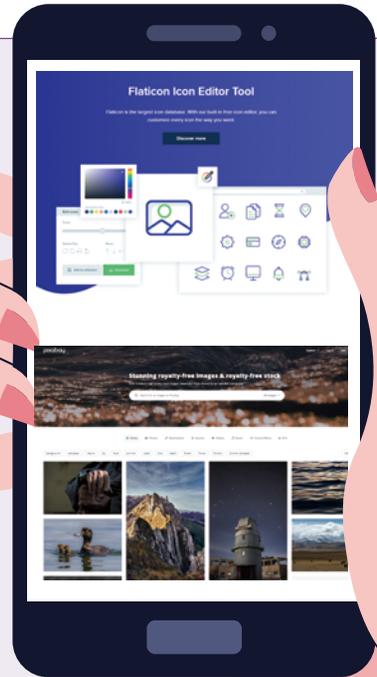
03_사무·관리 직군

다양한 사회 경험, 유연한 사고와 민첩한 위기 대응, 꼼꼼한 일처리, 원만한 대인관계 등 사회인이자 직장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강점을 구조화하세요. 하나의 흐름으로 스토리텔링하는 거지요. 포용적이고 두루 부족함이 없는 제너럴리스트도 좋고, 업무에 있어 몰입도가 높은 완벽주의자도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특징과 이력에 대한 호기심이 일도록 내용과 이미지를 구성해보세요. 당신이 보여주는 포트폴리오 스토리에 누구나 관심과 흥미를 느끼게 될 겁니다.

포트폴리오 디자인, 어려우시죠?

여러분의 디자인을 도와줄 행복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 언스플래시, 픽사베이, 카본픽스, 로우픽셀
 -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
- 플래티콘 - 아이콘, 픽토그램 다운로드
- 웹그라디언트, 피그먼트, 컬러스페이스
 - 색조합 추천 사이트
- 리무브BG - 배경제거 사이트
- 포토스케이프엑스
 - 이미지 편집, 보정 프로그램
- 눈누 - 무료폰트저장소



포트폴리오는 '취업'을 목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하나의 창작물에 가깝습니다. 창작의 기본은 무엇일(소재) 어떻게(장르) 왜(주제) 담을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구구절절 풀어내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나로 열을 알리는 '보여주는 말하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지만 모두가 취업에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잘 표현하는 최고의 홍보담당자가 되어 주세요. 자, 이제 컴퓨터를 켜십시오. 취업 들어갑니다.

위대한 낙관주의자가 전하는 성대한 위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

무명배우 충길은 오늘도 자연스럽게 동생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돈 빌리는 연기’를 연습한다. 능숙한 연기로 돈 빌리기에 성공한 충길은 배역을 따내기 위한 오디션 영상을 찍는다. 집에선 어른 구실 못한다고 괘시받지만, 자신을 응원해주는 친구와 동생이 있음에 만족한다. 그러던 어느 날 영화 출연의 기회를 얻는 충길. 배우로서 특이한 외모를 가졌다는 감독의 칭찬에 촬영 날짜만 손꼽아 기다린다. 그러던 중 예전부터 짝사랑해온 윤정에게 고백도 하게 된다. 충길은 과연 연기와 사랑 모두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

김충길·윤혜신·임성균·한동원



한 남자가 스마트폰을 켜놓고 무언가를 찍기 시작한다. 연기연습을 하는 모양새다. 처음엔 말론 브란도를 보여주더니 이소룡과 주라기 공원의 공룡 소리를 흉내 내고는 댄스까지 종횡무진이다. 설마, 오디션용으로 쓸 건 아니겠지? 그는 <응답하라 1988> 10화에 바닷가에서 배구공 던지는 남자로 4초간 나왔고, <오 나의 귀신님>에서 족발배달원으로 등장한 게 고작인 무명배우다. 이렇게 영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는 무명배우의 어설픈 연기연습으로 시작한다.

세상은 불공평해서 나의 노력을 종종 실패로 보답한다. 이때 대부분은 좌절하거나 세상을 성토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다.

영화배우 김충길의 감독 데뷔작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는 무명배우 충길 앞에 놓인 쉽지 않은 배우의 생을 유쾌하게 그린다. 제대로 된 기회조차 잡지 못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청년 세대의 일상과 고민이 감독 특유의 낙관주

의로 덮여있다. 영화 속 세상이 무명배우에게 허락한 건 동생에게 돈을 빌리는 것 정도다. 현실은 딱 거기까지. 그의 연기는 현실 앞에서 무력하다. 운정을 향한 고백은 좌절로 돌아오고, 어렵게 따낸 배역은 날아가기 직전이다. 체크카드 잔액 부족으로 번번이 결제가 막힌다. 그러나 낙관주의와 유쾌한 모험정신을 앞세운 영화는 이를 이겨내며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안되면 말고 식의 무책임이 아니다. 어쨌든 총길은 심 없이 노력하고 애쓰니까. 슬프거나 답답하기는커녕 영화를 보는 내내 같은 호흡으로 응원하는 진귀한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어진 생을 곳곳이 영위한다. 학교와 일터에 나가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좌절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꿈꾼다. 삶이 아름다

운 것은 마주한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순간에 있음을 영화는 말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다. 사소한 일들이 모여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정말로 총길이 무명배우를 벗어나 신스틸러가 되는, 무더운 여름날의 개운한 소낙비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

“

삶이 아름다운 것은 마주한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순간에 있음을
영화는 말한다

개봉 2021. 12. 23.
장르 드라마

감독 김충길
주역 김충길(총길 역),
윤해신(윤정 역)
출연 한동원, 주남정,
이원진 등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하버드대학에 10번 지원해서 10번 떨어졌다. 중국에 맥도날드가 처음 들어왔을 때 24명의 지원자 중 23명을 뽑았는데 떨어진 1명이 마윈이었다. 2번의 흥행 실패 끝에 3번째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로 기사화생한 박찬욱 감독은 이번에도 실패했으면 어떡할 거였냐는 질문에 “그럼 4번째 영화를 만들고 있겠죠”라고 답했다.

다이슨 청소기도 5년간 5126번의 실패 끝에 나온 아이디어였으며, <해리포터와 마법의 돌>은 출판사의 12번의 거절 끝에 빛을 볼 수 있었다. 결국 눈부신 성공 뒤에는 늘 땀과 노력을 시도하고 시작했으며 끈질기게 밀어붙인 시간이 있었다.

영화 속 총길의 일상은 실패의 연속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에겐 아직 제대로 된 기회가 오지도 않았고, 실패하며 주저앉기에 그의 나이 서른은 너무도 창창하다. 번번이 주저앉지만 또 매년 일어나는 회복탄력왕 김충길의 앞날에 위대한 성공이 함께 하길.

당신의 일·생활 균형을 응원합니다!

스마트한 업무 드라이빙을 위한 안내서

현대 직장인들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가치 중 하나, 바로 일과 생활의 균형 감인데요. 직장인으로서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자연인으로서 휴식과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직장인의 합리적 근로 생활 확산과 풍요로운 여가 생활 증진에 앞장서는 <월간내일>에서는 스마트 시대를 사는 바쁜 현대 직장인의 소중한 1분 1초를 위해, 안전하고 편안한 업무 드라이빙 안내를 통해 여러분의 근로 생활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합니다.



워라밸로 가는 그 첫 번째 시동, 단축키

업무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는 직장인의 동반자 컴퓨터. 더 많은 업무를 더 빨리 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업무 고효율을 위한 치트키, 바로 ‘단축키’입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주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단축키를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원하는 기능을 찾기 위해 마우스로 손품 파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윈도우와 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 단축키를 알아두면 업무 효능감을 더욱 높일 수 있는데요.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는 다른 스마트한 업무 드라이빙, 단축키로 시동 한 번 걸어 볼까요?

➔ 알아두면 쓸데 많은 윈도우 단축키 (월간내일 추천!)

윈도우 + D	바탕화면 보기	Ctrl + Shift + Esc	작업 관리자 열기
윈도우 + L	화면 잠그기	Ctrl + Shift + N	새 폴더 만들기
윈도우 + E	파일 탐색기 열기	Ctrl + Shift + T	닫힌 창 다시 열기(탭의 경우 탭이 재실행)
윈도우 + S	검색 창 열기	Ctrl + T	새 탭 열기
윈도우 + I	설정 창 열기	Shift + 다시시작	재부팅 시 프로그램도 다시 시작
윈도우 + X	고급 사용자 메뉴 열기(각종 시스템 관리 연결)	Alt + Spacebar	현재 창 시스템 메뉴 열기
윈도우 + Shift + S	화면 캡처 도구	Alt + Enter	파일 속성 보기
윈도우 + Home	현재 창 빼고 다내림	Alt + F4	현재 창 닫기
윈도우 + 방향키	두 창 동시에 띄우기	Alt + Tab	빠른 프로그램 전환

Tip 포털에서 ‘단축키’를 검색하면 프로그램별 다양한 단축키 모음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필요한 단축키들을 따로 모아 정리하면 더욱 강력한 워라밸 부스터를 얻게 될 겁니다.

내 업무의 핸들은 내가 친다

매일 매주 매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정규 업무는 물론 언제 어떻게 추가 될지 모르는 특별 업무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은 천 차만별입니다. 그렇기에 일의 경중과 순서, 소요 시간 등에 따라 일을 얼마 나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실행하는가는 스마트한 근로 생활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자신의 역량과 업무 환경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업무 관리와 감독, 내 업무의 관리감독자가 필요한데요.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무 관리로 일·생활 균형이라는 신세계를 눌러보아요.



♪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 월** 주·월별 스케줄링으로 업무 흐름 파악하기
- 간** 단한 업무부터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 내** 역량 안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 짜기
- 일** 은 확실하게 씬은 더 확실하게!

발생한 이벤트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돌발상황 앞에서 우리들의 스마트한 업무 드라이빙은 위기를 맞습니다. 애써 만든 작업물이 부정적 결과로 돌아오고, 퇴근을 앞두고 갑작스런 업무 요청이 들어오고, 실컷 해놓은 작업물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손상을 입는 등 발생한 이벤트 앞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평정심을 잃고 당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단단한 마음에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나만의 매뉴얼'을 만들 것을 추천합니다.



➔ 위기대처 매뉴얼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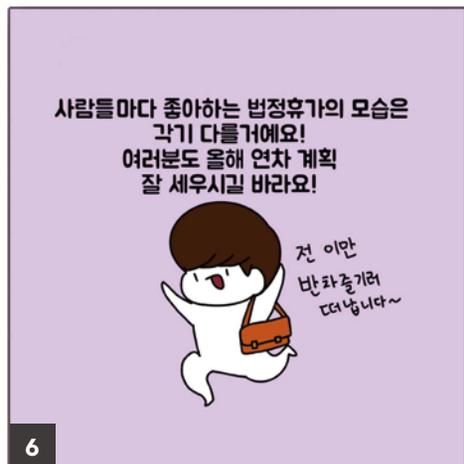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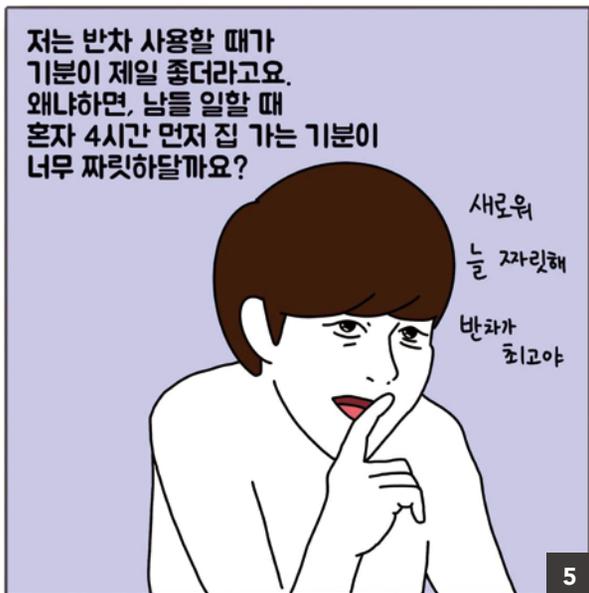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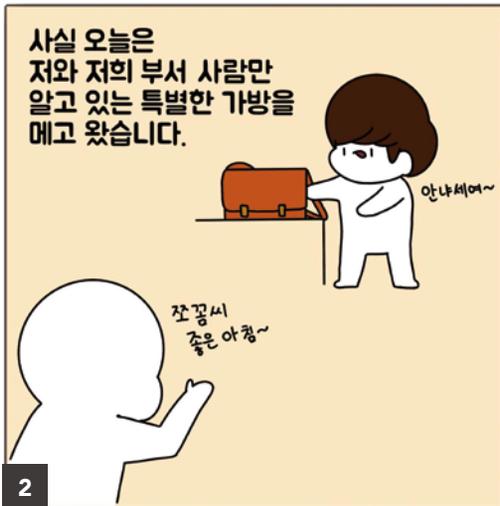
결과물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거절이 어려운 갑작스런 업무 요청
 결과물의 저장 실패, 무한 오류 반복
 잘못된 메일 전송 등

- ① 당면한 상황을 부정하지 않는다.
- ② 마음의 평정부터 찾는다.
- ③ 문제의 원인을 파악, '월, 간, 내, 일' 원칙에 입각한 업무 핸들링을 준비한다.
- ④ 단축키를 심분 활용, 재정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 ⑤ 그럼에도 일·생활균형에 중대 차질이 온다면, 주어진 경험을 더 나은 워라밸길로 가는 발판으로 삼는다.

넌툰

글·그림
조성준

특별한 가방



퇴근 후...

누구보다 평범한 직장인
쫄쫄씨의 일상은
퇴근하게됩니다.

내가왔다
세상아!

퇴근 후 부터 시작됩니다.

고윤노동부 X 쫄쫄마루
컬-라보레이슨-

1

요리도 하고,
가까악!

그림도 그리고,

가끔은 운동도 하며,
퇴근 이후 시간을 즐기는데요.

2

가끔 이런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Q. 그렇게 퇴근 이후에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음... 아유라...

3

업무
스트레스

이걸 깨버려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물론 당연하게도
스트레스 해소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4

퇴근 이후의 삶이 있다보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야근을 피하려 하고,
자연스럽게 업무 효율도 올라가거든요!
무엇보다 직장 업무 외의
자신의 삶이 존재하니,
번아웃이나 직장인 우울증 예방에도
좋은 것 같아요!

요기
장점 대령이요!

5

여러분도 저와 함께
퇴근 이후의 삶을 계획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퇴근 후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6



우리 지금 '만 나이' 올바른 '만 나이' 사용 설명서

'만 나이 통일법'이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제 나이를 쓸 때 별도의 '만'이란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기재하면 됩니다. 나이 세는 방법이 법에서 따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상황에서 '만 나이'가 우리의 실제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 란?

① 정의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

② 계산법

- 올해 생일 지남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올해 생일 안 지남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EX> 1981년 6월 10일 늘봄씨 : 2023년 - 1981년 = 42 세
1981년 12월 10일 고용씨 : 2023년 - 1981년 - 1 = 41 세

※ 만 나이 계산법은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 또는 온라인 포털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만 나이' 고용노동관련 Q&A

- ① 국민연금 수령 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정년퇴직 기한 등이 2년씩 늦춰지게 되나요?
A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미 '만 나이'가 적용돼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상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이 기준은 '만 나이'입니다.
- ② 고용노동 정책에서 나이와 관련된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A 취업 가능 최저 연령: 15세 이상 / 연소자 기준: 18세 미만 / 고령자 기준: 55세 이상 / 준고령자 기준: 50세 이상~55세 미만
- ③ '정년을 60세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60세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 중 언제가 기준인가요?
A 정년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0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놓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만 60세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만 나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누리집 - 법제업무정보 - 행정법제 혁신 - '만 나이 통일' 클릭)

#일스타그램

웹진에서 만나는 #일스타그램 이벤트

여러분의 일은 어떠신가요?
 자랑하고픈 근무 환경, 든든한 나의 동료,
 보람찬 나의 업무, 노력이 묻어나는 구직활동까지.
 <월간내일>에서 구독자들 저마다의 '일'을 모두와 공유하며
 함께 공감하고, 웃고, 즐겨 보아요.



참여방법

- 1.인스타그램에 나의 '일'을 표현하는 사진을 선택한다.
 - 2.본문에는 관련 코멘트와 함께 해시태그 '#월간내일_일스타그램'을 필수 기재하여 게시한다.
- *비공개 계정은 참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참여혜택

참여 게시물이 해당 웹진에 게재될 시, 디지털 쿠폰을 지급합니다.
 당첨자에게 별도의 연락을 드립니다.



<월간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01

<월간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웹진 바로가기

02

왼쪽의 늘봄이(QUICK MENU)를 클릭
 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쪽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03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